

A Validation Study on Parental Burnout Assessment in South Korea

Mun Seol Eom^{1#}, Yang Hee Lee^{1,2*}

¹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² Convergence Program for Social Innov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Abstract

Parental burnout occurs as a result of a long-term accumulation of parental stres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Parental Burnout Assessment (PBA) developed by Roskam *et. al.* in South Korea. PBA is composed of 23 questions in four sub-factors such as 'exhaustion: exhaustion in one's parental role', 'contrast: contrast in parental self', 'saturation: feelings of being fed up', and 'emotional distancing: emotional distancing from one's children.' To validate the scale, the data from 226 mothers parenting at least one child under age 5 were used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of items, reliability, and validity.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4-factor PBA model and convergent validity were examined by correlation analysis of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Parental Burnout Inventory (PBI), and Parenting Stress Index (PSI). This study established a validated scale that can be used to measure parental burnout among South Korean parents.

Key words: parental burnout, burnout, parental burnout assessment, validation

1. 서론

부모에게 자녀 양육은 기쁨의 원천임과 동시에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삶의 중대한 사건이기 보다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소소하게 발생하는 것이다(Crnic & Greenberg, 1990; Skovholt, 2001). 하지만 이러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소진(번아웃, burnout)으로 이어질 수 있다(Jang & Kim, 2011; Skovholt, 2001). 소진은 스트레

스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신체적·심리적으로 탈진이 된 상태(Skovholt, 2001)로 소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직장인의 소진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왔다. 소진의 개념은 Maslach, *et. al.*(1996)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탈진(emotional exhaustion), 성취감의 결여(lowered accomplishment),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로 개념화한 것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Grossi, *et. al.*, 2003). 이 세 가지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정서적 탈진'은 개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로 소진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다. 다

The 1st author: Mun Seol Eom, Tel. +82-02-760-0719, Fax. +82-02-760-0525, e-mail. crecenciams@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Yang Hee Lee, Tel. +82-02-760-0719, e-mail. leeyh@skku.edu

음으로 ‘성취감의 결여’는 직장 내에서 과도한 업무 요구 및 기대로 인하여 성취감 및 효율성이 저하된 상태로 직무 효능감이 낮은 상태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비인간화’는 업무 또는 업무상 마주하게 되는 고객에게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지나치게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 소진은 직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것으로(Maslach & Leiter, 1997), Freudenberger(1974)는 특히 치료 현장, 긴급 직통 전화, 위기 개입 등과 같이 서비스 대상자, 고객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분야의 종사자에게 소진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보육교사(Jo, *et. al.*, 2018; Oh & Kim, 2020), 초등교사(Kim & Kim, 2017; Park & Kim, 2018), 특수교사(Hong, *et. al.*, 2017; Koo, *et. al.*, 2017), 간호사(Kim, *et. al.*, 2019; Park, 2017), 호텔종사자(Kim & Chung, 2017; Kim & Ko, 2017), 미술 및 음악치료사(Jeong, 2017; Kim & Kim, 2020; Park & So, 2019) 등 다양한 직업군 종사자들의 소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부모 역할을 직무에 대입시켜 보면 양육 역시 사람을 상대로 역할 수행을 하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부모 소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 소진은 양육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에 관한 것으로, 양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부모 역할과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만성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어 발생하는 증후군(syndrom)으로 설명된다(Mikolajczak, *et. al.*, 2018b; Mikolajczak & Roskam, 2018). 최근에 부모 소진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양육 맥락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소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rianda, *et. al.*, 2020; Griffith, 2020; Mikolajczak, *et. al.*, 2019; Mikolajczak, *et. al.*, 2020; Mikolajczak & Roskam, 2018; Roskam & Mikolajczak, 2020; Sorkkila & Aunola, 2020). 지금까지 부모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 자신의 신경증(Mikolajczak, *et. al.*, 2018b; Vigouroux & Scola,

2018), 완벽주의 추구 성향(Sorkkila & Aunola, 2020), 자녀의 수 및 자녀의 장애 또는 질환(Séjourné, *et. al.*, 2018; Vigouroux & Scola, 2018), 낮은 결혼 만족도, 공동 양육 및 혼란스러운 가정환경(Mikolajczak, *et. al.*, 2018b), 낮은 사회적지지(Séjourné, *et. al.*, 2018) 등이 알려져 있다.

최근, Mikolajczak, *et. al.*(2020)은 요인분석을 통해 부모 소진이 기존에 연구되어오던 직업 소진 및 우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더 나아가 부모 소진, 직업 소진 및 우울이 이후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 소진이 직업 소진 및 우울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임 및 폭력적 양육방식을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부모 소진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Griffith(2020)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로 인하여 보육 및 교육 기관이 수업 방식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원·휴교를 결정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이 늘어나 부모 소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아동의 학대 및 방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최근 Brianda, *et. al.*(2020)은 부모 소진의 심각성과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 소진 집단과 비소진 집단의 모발 코르티솔 농도(hair cortisol concentrations; HCC)를 비교하였다. HCC는 정신신경내분비학(psychoneuroendocrinology)에서 만성 스트레스의 생물학적 반응 및 다양한 병리학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다(Greff, *et. al.*, 2019). 모발에 축적된 코르티솔 수치는 바이오마커(biomarker)가 되며, 한 달에 모발 1cm가 자란다는 가정 하에 뿌리로부터 모발 3cm를 사용하여 지난 3개월 동안의 코르티솔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다(Staufenbiel, *et. al.*, 2013). 그 결과 소진 집단의 부모의 모발에서 비소진 집단보다 2배 이상의 코르티솔 농도가 검출되었고, 이는 부모 소진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PA axis)에 영향을 미쳐 신체 건강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상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

해 부모 소진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모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비교적 최근까지도 Maslach & Jackson(1981)이 개발한 직무 소진 측정도구(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양육 맥락에 맞게 ‘일(work)’과 같은 단어를 ‘부모 역할(parental role)’, ‘양육(parenting)’ 등으로 일부 수정하여 타당화된 부모 소진 측정도구(Parental Burnout Inventory; PBI)가 사용되어 왔다(Roskam, *et. al.*, 2017). 국내의 경우 부모 소진을 측정하는 타당화된 도구는 부재한 상황이며, Han(2010)이 MBI를 부모의 상황에 맞게 문항에서 ‘직무’, ‘일’과 같은 단어를 ‘자녀를 돌보는 일’로 번안 및 수정한 것이 사용되어왔다. 직무 소진 측정도구(MBI)의 하위요인은 (1) 정서적 탈진, (2) 비인간화, (3) 성취감의 결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는 (1) 신체적·정서적 탈진, (2) 자신/자녀로부터 정서적 거리두기, (3) 부모 역할에 대한 무능한 느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직무 소진은 직장 및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된 것이며, 양육 상황은 직무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 소진 척도(MBI)를 기반으로 수정된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가 부모 소진의 구성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Hubert & Isabelle, 2018).

이에 Hubert & Isabelle(2018)은 부모 소진 증상을 호소하는 어머니 5명에게 비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출된 문항을 Roskam, *et. al.*(2018)이 타당화하여 부모 소진 척도(Parental Burnout Assessment; PBA)를 개발하였다. 부모 소진 척도는 부모 소진 측정도구와 달리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1) 탈진: 부모 역할에 대한 탈진(exhaustion: exhaustion in one's parental role), (2) 자기 대조: 부모로서 자기 대조(contrast: contrast in parental self), (3) 포화: 싫증남(saturation: feelings of being fed up), (4) 정서적 거리두기: 자녀와 정서적 거리두기(emotional distancing:

emotional distancing from one's children).

새로 추가된 하위요인인 ‘자기 대조’는 소진을 경험하기 이전의 부모로서 자신의 모습과 소진을 경험하는 현재의 모습이 대조되는 상태로, 양육에 있어 질적으로 달라진 행동양상을 측정한다. 이는 소진 증상을 살필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전의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가 포착하지 못한 요소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Roskam, *et. al.*, 2018). 또한 하위요인 ‘포화’는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의 ‘부모 역할에 대한 무능한 느낌’과 다소 다른 개념을 측정한다. 이에 대하여 Roskam, *et. al.*(2018)은 부모 소진을 경험할 때에는 직무 소진과 달리 효능감을 상실하기 보다는 부모 역할에 대한 싫증을 느끼고 기쁨, 성취의 상실을 경험하는 포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PBI는 양육이 아닌 직장의 맥락에서 개발된 도구인 MBI를 기초로 연역적으로 설계되었으나 PBA는 앞서 기술한 Hubert & Isabelle(2018)의 연구를 통해 귀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 소진 척도(PBA)가 양육 상황에서 소진을 측정하기에 보다 적합한 도구라 할 수 있다(Roska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의 소진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 소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에 따라 부모 소진 척도(PBA)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모 소진 연구가 매우 적은 상황이며, 한국 부모의 소진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직무 소진 측정도구(MBI)를 수정한 것을 사용(Choi & Koh, 2016; Han, *et. al.*, 2011; Jang & Kim, 2011; Kim & Oh, 2018; Yoon, 2019)하였으나, 한국어로 타당화된 도구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모 소진 척도(PBA)를 한국어로 타당화하여 양육 맥락에서 부모들이 경험하는 소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한다면, 향후 부모 소진의 특성, 원인 및 결과를 파악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부모 소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양육으로 지친 부모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 소진 척도(PBA)를 타당화하기 위하여 만 0-5세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22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본 수는 척도 문항 개수의 최소 6배에서 10배로 Gable & Wolf(1993)가 제안한 것을 기준으로 본 척도는 23문항으로 138~230명의 자료가 필요하여 적절한 표본수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응답자 및 응답자 가족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34.1세로 30대(70.8%), 20대(8.0%), 40대(5.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43.8%), 대학원 이상(18.1%), 전문대 졸업(15.9%), 고등학교 졸업(5.8%)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유형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전일제, 시간제)는 44.2%이며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휴직/무직)는 39.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족의 특성 살펴보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수는 평균 3.6명으로 3명이 55.3%, 4명이 34.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녀의 수는 평균 1.4명으로 1명이 61.9%, 2명이 3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장애 진단을 받은 자녀가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는 4.4%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스 또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적이 있다’와 ‘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화나 전기가 끊긴 적이 있다’는 두 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예/아니오”로 응답을 받았으며,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응답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응답자는 5.3%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를 주되게 양육하고 있는 공동양육자 수는 1명이 68.1%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양육자 없이 혼자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는 8.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혼자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를 제외한 207명이 보고한 공동양육자 유형을 다중응답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Variables	N(%)	M(SD)	
Age	20s	18(8.0)	34.2 (3.61)
	30s	160(70.8)	
	40s	11(5.8)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3(5.8)	-
	2/3-year college	36(15.9)	
	university	99(43.8)	
	graduate school or higher	41(18.1)	
	non-response	37(16.4)	
Employment	full-time	78(34.5)	-
	part-time	22(9.7)	
	inoccupation	89(39.3)	
	non-response	37(16.4)	
Number of family members	2	2(0.9)	3.6 (0.71)
	3	125(55.3)	
	4	78(34.5)	
	5	18(8.0)	
	6	3(1.3)	
Number of children at home	1	140(61.9)	1.4 (0.63)
	2	75(33.2)	
	3	8(3.5)	
	4	3(1.3)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or disability	yes (one or more)	10(4.4)	-
Economic difficulty	yes	12(5.3)	-
Co-parenting number	0	19(8.4)	1.2 (0.69)
	1	154(68.1)	
	2	40(17.7)	
	3 or more	19(5.7)	
Co-parents ^a	Spouse	188(69.1)	-
	Father-in-law	7(2.6)	
	Mother-in-law	19(7.0)	
	Father	12(4.4)	
	Mother	36(13.2)	
	Others	10(3.7)	
	Total	272(100.0)	

^a Multiple response analysis (N=207)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총 272개의 응답이 보고되었다. 이 중 공동양육자로 배우자는 90.8%, 친어머니 17.4%, 시어머니 9.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응답한 10명 중 4명은 아동의 이모, 6명은 시터(돌봄 도우미)를 공동양육자로 보고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 소진 척도: PBA

본 연구에서 번아웃 및 타당화하고자 하는 척도는 부모 소진 척도(PBA)로 Roskam, *et. al.*(2018)이 개발하였다. 부모 소진 척도는 23개 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탈진(부모 역할에 대한 탈진) 9문항, 자기 대조(부모로서 자기 대조) 6문항, 포화(싫증남) 5문항, 정서적 거리두기(자녀와 정서적 거리두기) 3문항이다. 문항의 응답은 1~7점으로 응답을 받아 숫자가 높아질수록 경험의 빈도가 잦아져 부모 소진 증상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1점 = 그런 적이 없다, 2점 = 1년에 두세 번, 3점 = 한 달에 한 번 이하, 4점 = 한 달에 두세 번, 5점 = 1주일에 한 번, 6점 = 1주일에 두세 번, 7점 = 매일). Roskam, *et. al.*(201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은 부모 역할에 대한 탈진 .93, 자기 대조 .94, 포화 .91, 정서적 거리두기 .77이었다.

2) 직무 소진 측정도구: MBI

본 연구에서 부모 소진 척도(PBA)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직무 소진 측정도구(MBI-GS; Shin, 2003)를 사용하였다. 직무 소진 측정도구는 직무와 관련한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Maslach, *et. al.*(1996)가 개발하였으며, 한국 문화에 맞게 Shin(2003)이 타당화하였다. 소진 측정도구는 15문항이며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탈진, 비인간화, 성취감 결여. 성취감 결여를 측정하는 문항 여섯 개는 역문항으로 역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했다. 각 문항에 대하여 1점에서 7점(1점 = 그런 적이 없다, 2점 = 1년에 두세 번, 3점 = 한 달에 한 번 이하, 4점 = 한 달에 두세 번, 5점 = 1주일에 한 번, 6점 = 1주일에 두세 번, 7점 = 매일)으로 응답을 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더 심각한 상태로 해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3) 부모 소진 측정도구: PBI

본 연구에서 부모 소진 척도(PBA)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 Han, 2010)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Maslach, *et. al.*(1996)이 개발한 직무 관련 소진 측정도구(MBI)를 토대로 Han(2010)이 부모의 상황에 맞게 한국어로 번안 및 수정한 것이다. 유사하게 MBI를 토대로 수정한 Roskam, *et. al.*(2017)의 PBI 영어 문항과 Han(2010)의 한국어 문항을 비교하였을 때 같은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BI 문항으로 Han(2010)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 소진 측정도구는 15문항이며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정서적 탈진, 자신/자녀와 정서적 거리두기, 부모 역할에 대한 무능한 느낌. 부모 역할에 대한 무능한 느낌을 측정하는 문항 여섯 개는 역문항으로 역채점하여 총점을 산출했다. 각 문항에 대하여 1점에서 7점(1점 = 그런 적이 없다, 2점 = 1년에 두세 번, 3점 = 한 달에 한 번 이하, 4점 = 한 달에 두세 번, 5점 = 1주일에 한 번, 6점 = 1주일에 두세 번, 7점 = 매일)으로 응답을 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소진이 더 심각한 상태로 해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4) 양육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부모 소진 척도(PBA)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육 스트레스 검사-축약형(Lee, *et. al.*, 2008)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축약형(PSI/SF: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을 Lee, *et. al.*(2008)이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총 36 문항이며 세 개의 하위요인이 각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고통(distress),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전체 .93, 각 하위요인은 부모의 고통 .86,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86,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척도 번안

한국판 부모 소진 척도(PBA)를 타당화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척도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 본 연구자가 23개의 문항을 번안하였다. 번안한 문항의 단어 및 표현의 적절성, 문화적합성 등에 대하여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1인, 사회복지학 박사 1인에게 전문가 검토를 받아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인 아동·청소년학 석사에게 역번안을 의뢰하였다. 원 문항과 역번안 문항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학 박사 1인과 앞서 전문가 검토를 받았던 사회복지학 박사 1인에게 검토를 받고 논의 과정을 거쳐 문항을 수정하였다. 부모 소진을 주제로 약 40개국의 연구자들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 부모로부터 수집된 자료 역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문항을 추가/삭제하지 않고 원 문항의 의미가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정된 문항의 이해도 및 단어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 세 명에게 의견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학 박사 1인의 검토를 받아 예비 문항을 완성하였다.

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승인번호: 2020-01-013-001). 부모 소진 척도(PBA)를 타당화하고자 척도개발자의 승인을 받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번안된 문항을 토대로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부모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인 서베이 몽키를 활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육아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 설문조사 홍보글 및 설문 링크를 게시하여 편의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배포 및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한국판 부모 소진 척도(PBA)를 타당화하고자 다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먼저 문항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치,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문항 내적 일관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가 Roskam, et al.(2018)이 보고한 4요인과 동일한 요인구조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AMOS 21.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번안 및 타당화하는 것으로, 기존에 개발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를 다른 대상에게 타당화할 경우 반드시 탐색적 요인분석이 선행되지 않아도 되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Izquierdo, et al., 2014; Yu, 2012).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χ^2 (Chi-square), Normed χ^2 (χ^2/df),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참고하여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부모 소진 척도(PBA)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무 소진 측정도구(MBI),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 양육스트레스 척도와 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부모 소진 척도(PBA)는 23문항으로 각 문항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부터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소진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분석 결과 문항 평균은 1.6~5.0, 표준편차는 1.26~2.20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items

Sub factors	Items	M	SD	Skewness	Kurtosis
Exhaustion	1 I feel completely run down by my role as a parent	5.0	1.59	-.711	-.302
	2 I have the sense that I'm really worn out as a parent	4.6	1.80	-.420	-.799
	3 I'm so tired out by my role as a parent that sleeping doesn't seem like enough	4.7	1.90	-.487	-.912
	4 When I get up in the morning and have to face another day with my child(ren), I feel exhausted before I've even started	4.1	1.99	-.212	-1.222
	5 I find it exhausting just thinking of everything I have to do for my child(ren)	3.7	2.02	-.007	-1.280
	6 I have zero energy for looking after my child(ren)	3.3	1.96	.295	-1.195
	7 My role as a parent uses up all my resources	3.8	2.20	.053	-1.473
	8 I have the impression that I'm looking after my child(ren) on autopilot	3.8	2.09	-.027	-1.391
	9 I'm in survival mode in my role as a parent	4.3	1.95	-.197	-1.142
Contrast	10 I don't think I'm the good father/mother that I used to be to my child(ren)	3.7	2.05	.111	-1.345
	11 I tell myself that I'm no longer the parent I used to be	3.2	2.12	.426	-1.284
	12 I'm ashamed of the parent that I've become	3.3	2.13	.419	-1.248
	13 I'm no longer proud of myself as a parent	2.8	1.99	.754	-.790
	14 I have the impression that I'm not myself any more when I'm interacting with my child(ren)	3.1	1.97	.467	-1.085
	15 I feel as though I've lost my direction as a dad/mum	2.7	1.88	.742	-.743
Saturation	16 I can't stand my role as father/mother any more	2.2	1.65	1.312	.646
	17 I can't take being a parent any more	1.6	1.26	2.534	6.003
	18 I feel like I can't take any more as a parent	1.6	1.30	2.377	5.116
	19 I feel like I can't cope as a parent	2.0	1.49	1.563	1.478
	20 I don't enjoy being with my child(ren)	2.4	1.68	1.038	.018
Emotional distancing	21 I do what I'm supposed to do for my child(ren), but nothing more	2.5	1.88	1.033	-.217
	22 Outside the usual routines (lifts in the car, bedtime, meals), I'm no longer able to make an effort for my child(ren)	2.5	1.92	1.001	-.396
	23 I'm no longer able to show my child(ren) how much I love them	1.9	1.61	1.745	1.812

※ Note: Possible range of each items is 1-7.

(skewness>3)와 첨도(|kurtosis|>8)를 참고하였다(Kline, 2011). 그 결과 모든 문항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값인 3과 8보다 작아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2) 신뢰도 검증 결과

한국판 부모 소진 척도(PBA)의 신뢰도 계수인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부모 소진 척도 전체 23문항의 Cronbach's α 는 .954였고, 각 요인별로 탈진 .934, 자기 대조 .933, 포화 .894, 정서적 거리두기 .87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네 가지 하위 요인의 양호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모든 개별 문항의 척도 내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정된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를 살펴보았다. 문항-전체 간 상관 계수가 .20 보다 낮을 경우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지나치게 낮아 문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Gable & Wolf, 1993). 본 연구결과에서는 모든 문항이 .440~.782로 .20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Table 3>). 문항 제거 시 내적 일치도(if item-deleted Cronbach's α) 역시 모든 문항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문항이 없었다. 또한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이 .475~.735로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부모 소진 척도 4요인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

Table 3. Item-total correlation and internal consistency

Sub factors	Item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If item-deleted Cronbach's α	Cronbach's α
Exhaustion	1	.603	.953	.934
	2	.673	.953	
	3	.440	.955	
	4	.656	.953	
	5	.750	.952	
	6	.769	.951	
	7	.695	.952	
	8	.709	.952	
	9	.743	.952	
Contrast	10	.782	.951	.933
	11	.704	.952	
	12	.713	.952	
	13	.733	.952	
	14	.713	.952	
	15	.759	.951	
Saturation	16	.719	.952	.894
	17	.549	.954	
	18	.577	.954	
	19	.630	.953	
	20	.724	.952	
Emotional distancing	21	.617	.953	.870
	22	.648	.953	
	23	.640	.953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ub-factors

	Exhaustion	Contrast	Saturation	Emotional distancing
Exhaustion	-			
Contrast	.634***	-		
Saturation	.523***	.672***	-	
Emotional distancing	.475***	.623***	.735***	-

*** $p < .001$

Table 5. Model fit

Models	χ^2	df	χ^2/df	TLF	CFI	RMSEA [90% CI]
Model	841.805	224	3.758	.844	.862	.111 [1.103-.119]
Modified model	487.643	215	2.268	.928	.939	.075 [0.066-084]

과 모형 적합도는 $\chi^2=841.805(df=224, p=.000)$, Normed $\chi^2(\chi^2/df)=3.758$, TLI=.844, CFI=.862, RMSEA=.111 (.103-.119)였다(<Table 5>). 모형 적합도 지수 χ^2 은 유의수준 $p=.000$ 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어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 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영가설이 쉽게 기각되므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다른 지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Yu, 2012). Normed χ^2 는 χ^2 값을 자유도(df)로 나눈 값으로 통상적으로 3 이하면 수용할 만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TLI와 CFI의 경우 통상적으로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일 경우 괜찮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ong, 2000). 이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값을 다소 충족하지 못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와 모수 변화(Parameter Change)를 참고해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지수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측정 변수 간 공분산 연결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공분산 연결을 위한 수정지수 크기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연구자의 판단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Yu, 2012).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 내 측정오차 간의 상관만 설정하였으며, 설정한 측정오차 간 상관과 그에 해당하는 수정지수 및 모수 변화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수정된 모형 적합도는 $\chi^2=487.643(df=215, p=.000)$, Normed $\chi^2(\chi^2/df)=2.268$, TLI=.928, CFI=.939, RMSEA=.075(.066-.084)였다. 수정된 모형 적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Table 6. MI and parameter change

Correlation between measurement error	MI	Parameter change
e1 - e2	58.208	.574
e10 - e11	48.485	.766
e17 - e18	36.241	.186
e3 - e4	24.408	.631
e12 - e13	22.119	.332
e18 - e19	16.392	.175
e17 - e19	15.336	.167
e22 - e23	18.080	.366
e12 - e15	10.069	-.207

Table 7.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bfactors	Items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Standardized Estimate
Exhaustion	1	1.000	-	-	0.720
	2	1.249	0.073	17.154***	0.795
	3	0.972	0.113	8.600***	0.588
	4	1.361	0.118	11.556***	0.784
	5	1.481	0.119	12.433***	0.842
	6	1.422	0.116	12.286***	0.832
	7	1.542	0.130	11.839***	0.802
	8	1.364	0.124	11.009***	0.748
	9	1.476	0.115	12.861***	0.870
Contrast	10	1.000	-	-	0.920
	11	0.966	0.051	19.019***	0.858
	12	0.956	0.052	18.360***	0.847
	13	0.933	0.054	17.422***	0.883
	14	0.713	0.057	12.429***	0.681
	15	0.773	0.050	15.425***	0.773
Saturation	16	1.000	-	-	0.839
	17	0.623	0.055	11.320***	0.683
	18	0.666	0.056	11.852***	0.706
	19	0.756	0.064	11.718***	0.700
	20	0.957	0.069	13.884***	0.789
Emotional distancing	21	1.000	-	-	0.715
	22	1.101	0.071	15.432***	0.770
	23	1.050	0.088	11.991***	0.877

***p < .001

한국판 부모 소진 척도(PBA)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모든 요인 부하량(Standardized Estimate)은 .588~.920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은 최소 .50 이상 .95 이하면 수용할만 하며 .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는 Yu(2012)의 기준을 토

대로 적합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요인부하량의 유의성(p<.05)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모든 문항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4) 공인타당도 결과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부모 소진 척도(PBA)와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 직무 소진 측정도구(MBI), 양육 스트레스 척도(PSI)의 전체 및 하위 요인 점수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8>).

부모 소진 척도(PBA) 전체와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의 상관계수는 .779(p=.000), 부모 소진 척도의 4가지 하위요인과 부모 소진 측정도구의 상관은 .654~.679(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159~.830(p<.0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무 소진 측정도구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N=101), 상관분석 결과 부모 소진 척도(PBA)와의 총점 간 상관계수는 .573(p=.000), 부모 소진 척도의 4가지 하위요인과 직무 소진 측정도구 총점의 상관은 .422~.569(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직무 소진 측정도구(MBI)의 하위요인 중 ‘성취감 결여(MBI3)’는 부모 소진 척도(PBA)의 정서적 탈진(Exhaustion, r=.121)과 포화(Saturation, r=.173)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이외 다른 하위요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Correlation between PBA, PBI, MBI, and PSI

Variables	MBI	Sub factors			PBI	Sub factors			PSI	Sub factors		
		MBI 1	MBI 2	MBI 3		PBI 1	PBI 2	PBI 3		PSI 1	PSI 2	PSI 3
PBA	.573***	.503***	.521***	.219*	.779***	.768***	.736***	.297**	.646***	.603***	.489***	.526***
Exhaustion	.503***	.518***	.457***	.121	.661***	.830***	.501***	.159*	.560***	.610***	.327***	.453***
Contrast	.569***	.445***	.481***	.285**	.679***	.605***	.679***	.297**	.572***	.499***	.452***	.484***
Saturation	.448***	.345***	.475***	.173	.664***	.494***	.751***	.327**	.528***	.397***	.526***	.414***
Emotional distancing	.422***	.326***	.363***	.228*	.654***	.462***	.745***	.343**	.516***	.419***	.473***	.410***

※ Note: MBI1=Emotional exhaustion, MBI2=Lowered accomplishment, MBI3=Depersonalization, PBI1=Physical and emotional exhaustion, PBI2=Incompetent feelings of parental role, PBI3=Emotional distance from self and their children, PSI1=Parental distress, PSI2=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PSI3=Difficult child.

*p < .05, **p < .01, ***p < .001

부모 소진 척도(PBA) 전체 점수와 양육 스트레스 전체 점수는 .646($p=.000$), 부모 소진 척도 4가지 하위 요인과 양육 스트레스의 3가지 하위요인은 .327~.610 ($p<.001$)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모 소진 척도(PBA)는 직무 소진 측정도구(MBI),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 양육 스트레스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타당도가 확인되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부모의 소진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Roskam, *et. al.*(2018)이 개발한 부모 소진 척도를 번안하고 문항의 양호도,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소진 척도(PBA)를 구성하고 있는 23개 문항의 분포도 및 양호도는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문항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항(문항 17, 18, 23)의 평균이 1점대로 낮아 다소 편포되어 있으나 문항의 내용이 ‘문항 17: 나는 더 이상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M=1.6$)’, ‘문항 18: 나는 부모라는 것을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다($M=1.6$)’, ‘문항 23: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M=1.9$)’로 보다 심각한 소진 증상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본 연구 대상이 소진 증상을 호소하는 부모 또는 임상 집단이 아닌 지역사회 표본인 것을 고려하여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 수정된 문항-전체 간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항 내적 일치도의 경우 전체 문항은 .95, 네 가지 하위요인은 .87~.93으로 모두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고, 수정된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는 .440~.782로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의 문항 제거 시 내적 일치도 역시 모두 안정적으로 확인되어, 부모 소진을 측정하는데 모든 문항의 기여도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4요인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개선을 위해 수정지수와 모수변화를 참고해 수정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가 Hong(2000)이 제시한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본 척도가 4요인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588~.920으로 나타나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했으며(Yu, 2012), 요인부하량의 통계적 유의성 모두 $p<.001$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부모 소진 척도(PBA)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 직무 소진 측정도구(MBI), 양육스트레스 척도(PSI)와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기대되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보다 최근에 개발된 부모 소진 척도(PBA)와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의 상관은 .779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모 소진 척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과는 .654~.679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소진 척도(PBA)가 기존의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이와 함께,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가 직무 소진 측정도구(MBI)를 토대로 타당화된 도구라는 점에서 MBI와 부모 소진 척도(PBA)의 상관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573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소진 척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과 422~.569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으로, 직무 및 양육의 영역에서 발생한 소진의 특성이 일정 부분 유사하지만 여전히 소진이 특정 맥락에서 발생하는 개념(Mikolajczak, *et. al.*, 2018b)이며, 직무 소진과 부모 소진이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직무 소진 측정도구(MBI)와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성취감 결여(Lowered accomplishment)와 부모 역할에 대한 무능한

느낌(Incompetent feelings of parental role)은 효능감과 관련한 요인으로 부모 소진 척도(PBA)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관 또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PBA를 개발하기 위하여 Hubert & Isabelle(2018)의 연구를 통해 양육으로 인한 소진을 경험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결과 효능감의 상실 보다는 긍정적 정서를 잃은 포화된 상태를 보인다는 Roskam, *et. al.*(2018)의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이다. 종합적으로, 직무로 인한 소진을 측정하는 도구를 수정한 PBI를 사용하기보다 부모 소진 척도(PBA)가 부모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다 적합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 스트레스(PSI)와 부모 소진 척도(PBA)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646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별 상관은 .327~.610으로 나타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 소진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타당화 하고자 한 부모 소진 척도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척도 간에 상관을 통해 본 척도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 소진 척도(PBA)를 타당화하여 한국 부모의 소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Mikolajczak, *et. al.*(2020)은 양육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부모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소진을 단순한 스트레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상담, 치료, 지역 사회 서비스와 같은 외부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는 상태라고 강조하였다. 부모 소진을 경험하는 부모에게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부모 소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부모 소진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부모 소진 척도를 번안 및 타당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 소진 척도를 타당화하

기 위하여 때 만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 소진은 양육 맥락 특정 증후군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양육 과정에서 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가정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아동의 발달 속도가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하여 매우 빨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며, 5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소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Azar, 2002; Crnic, *et. al.*, 2005; Mikolajczak, *et. al.*, 2018b) 만 0-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반면, 부모 소진은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경험될 수 있으며 심지어 독립하지 않은 성인 자녀의 부모 역시 부모 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Mikolajczak, *et. al.*, 2018a).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 자녀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양육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해 연구를 수행한다면 자녀의 발달 단계별 그리고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 소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 소진 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Mikolajczak, *et. al.*(2018b)이 개발한 척도에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문항 및 응답방식을 추가/수정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양육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지 않은 것은 제한점이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된 23문항 모두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질만한 표현은 없었고 판단하였으며, 부모 소진 연구를 위해 형성된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f Parental Burnout (IIPB) 컨소시엄에 속한 40개국 이상의 연구자들과 부모 소진의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문항의 변형을 최소화 하였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부모 소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부모 소진이 다른 문화권의 부모와 달리 고유하게 갖는 특성 및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zar, S. T. 2002. Parenting and Child Maltreatment.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Social Conditions and Applied Parenting*.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ianda, M. E., I. Roskam, and M. Mikolajczak. 2020. Hair Cortisol Concentration as a Biomarker of Parental Burnout. *Psychoneuroendocrinology*. 117: 104681. <https://doi.org/10.1016/j.psyneuen.2020.104681>
- Choi, Eun A and Hee Seon Koh.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Burn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Maladjustment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503-530.
- Cmic, K. A. and M. T. Greenberg.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Cmic, K. A., C. Gaze, and C. Hoffman.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1): 159-165.
- Gable, R. K. and M. B. Wolf. 1993.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 Measuring Attitudes and Values in Corporate and School Settings*. Netherlands: Springer.
- Greff, M. J., J. M. Levine, A. M. Abuzgaia, A. A. Elzagallaai, M. J. Rieder, and S. H. van Uum. 2019. Hair Cortisol Analysis: An Update on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Clinical Applications. *Clinical Biochemistry*. 63: 1-9.
- Griffith, A. K. 2020. Parental Burnout and Child Maltreat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Family Violence*. <https://doi.org/10.1007/s10896-020-00172-2>
- Grossi, G., A. Perski, B. Evengård, V. Blomkvist, and K. Orth-Gomér. 2003. Physiological Correlates of Burnout among Wom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5(4): 309-316.
- Han, Eun A, Bo Young Kim, Sang Min Lee, and Hyo Jung Shin. 2011. Relationship of Parental Bonding Styles, Parent Burnout, and Children Academic Burnout.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7(1): 270-293.
- Hong, Se Hee.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ong, Sung Doo, Jae Yeol Lee, and In Ji Yoo. 2017. Validating a Measurement Scale of the Special Class Teacher's Burnout.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8(4): 145-161.
- Hubert, S. and I. Aujoulat. 2018. Parental Burnout: When Exhausted Mothers Open Up. *Frontiers in Psychology*. 9: 1021. doi: 10.3389/fpsyg.2018.01021
- Izquierdo Alfaro, I., J. Olea Díaz, and F. J. Abad García. 201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Validation Studies: Uses and Recommendations. *Psicothema*. 26(3): 395-400.
- Jang, Seong O and Yong Mi Kim. 2011. Effects of Maternal Rearing Stress and Burnout on their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Research of Waldorf Education*. 3(1): 91-111.
- Jeong, Hyeon Hee. 2017. Effects of Self Encouragement and Job Stress on Art Therapist's Psychological Burnout. *Journal of Clinical Art Psychotherapy*. 7(1): 1-17.
- Jo, Sang Ho, Dae Ok Kang, and Seong Cheol Kim. 2018. The Influence of Educare Teachers' Self-encouragement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Burnout.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8(4): 51-63.
- Kim, Ji Yeon and Kyoo Yup Chung. 2017. Dissatisfaction on Job Environment Influencing Hoteliers' Physical Exhaustion and Psychological Exhaustion.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26(5): 101-116.
- Kim, Jong Du and Ka Young Oh. 2018. A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Parents Burn-out: Focused on Child Mothers of Home-based Day Care Cente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3): 911-922.
- Kim, Tae Hun and Min Jeong Kim. 2017.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n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and Burnout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5(2): 19-37.
- Kim, Yae Eun and Gab Sook Kim.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Art Therapists: The Mediation Effect of the Art Therapist's Self-care. *Journal*

- of Arts Psychotherapy*. 16(2): 29-54.
- Kim, Yi Su and Mi Ae Ko. 2017. The Impact of Five-star Hotel Employees' Emotional Labor o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3): 151-165.
- Kim, Yu Jin, Chul Woung Kim, Hyo Bin Im, Sang Yi Lee, and Jung Hee Kang. 2019.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Burnout on Hospital Nursing Workloa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9): 93-102.
- Koo, Hyo Jin, In Ji Oh, and Hwa Seong Lim. 2017. A Study on the Resilience and Burn-out of the Teachers in Public Preschools According to Their Person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7(1): 205-231.
- Lee, Kyung Sook, Kyoung Mee Chung, Jin Ah Park, and Hye Jin Kim. 2008.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3(3): 363-377.
- Maslach, C. and M. P. Leiter. 1997. *The Truth about Burnout: How Organizations Cause Personal Stress and What to Do about I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aslach, C., S. E. Jackson, and M. P. Leiter. 1996. *Maslach Burnout Inventory*. 3r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ikolajczak, M. and I. Roskam. 2018. A Theoretical and Clinical Framework for Parental Burnout: The Balance between Risks and Resources (BR²). *Frontiers in Psychology*. 9: 886. doi: 10.3389/fpsyg.2018.00886
- Mikolajczak, M., J. Gross, F. Stinglhamber, A. Lindahl Norberg, and I. Roskam. 2020. Is Parental Burnout Distinct from Job Burnout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8(4): 673-689.
- Mikolajczak, M., J. J. Gross, and I. Roskam. 2019. Parental Burnout: What Is It and Why Does It Matter?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7(6): 1319-1329.
- Mikolajczak, M., M. E. Brianda, H. Avalosse, and I. Roskam. 2018a. Consequences of Parental Burnout: Its Specific Effect on Child Neglect and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80: 134-145.
- Mikolajczak, M., M. E. Raes, H. Avalosse, and I. Roskam. 2018b. Exhausted Parents: Sociodemographic, Child-related, Parent-related, Parenting and Family-functioning Correlates of Parental Burnou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2): 602-614.
- Oh, Jin Kyung and Sang Lim Kim. 2020.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Their Burnou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1): 83-90.
- Park, Hee Cheol and Min Jeong Ki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Style and Burnout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Perception of Student's Problematic Behavior.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6(2): 123-150.
- Park, Jin Hee and Hye Jin So. 2019. The Mediated Effects of Burnou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Self-efficacy and Turnover Intention of Music Therapist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5(4): 247-269.
- Park, Mi Kyung. 2017. Relationship among Hardiness, Social Support and Burnout of Nurses Working in Emergency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97-405.
- Roskam, I. and M. Mikolajczak. 2020. Gender Differences in the Nature, the Antecedents, and the Consequences of Parental Burnout. *Sex Roles*. 83(7-8): 485-498.
- Roskam, I., M. E. Brianda, and M. Mikolajczak. 2018. A Step Forward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Parental Burnout: The Parental Burnout Assessment (PBA). *Frontiers in Psychology*. 9: 758. doi: 10.3389/fpsyg.2018.00758.
- Roskam, I., M. E. Raes, and M. Mikolajczak. 2017. Exhausted Parents: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Parental Burnout Inventory. *Frontiers in Psychology*. 8: 163. doi:10.3389/fpsyg.2017.00163
- Séjourné, N., R. Sanchez-Rodriguez, A. Leboullenger, and S. Callahan. 2018. Maternal Burn-out: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36(3): 276-288.
- Shin, Kang Hyun. 2003.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 An Appli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3): 1-17.
-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MA: Allyn & Bacon.
- Sorkkila, M. and K. Aunola. 2020. Risk Factors for Parental Burnout

- among Finnish Parents: The Role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 648-659.
- Staufenbiel, S. M., B. W. Penninx, A. T. Spijker, B. M. Elzinga, and E. F. van Rossum. 2013. Hair Cortisol, Stress Exposure, and Mental Health in Humans: A Systematic Review. *Psychoneuroendocrinology*. 38(8): 1220-1235.
- Vigouroux, S. L. and C. Scola. 2018. Differences in Parental Burnout: Influence of Demographic Factors and Personality of Parents and Children. *Frontiers in Psychology*. 9: 887. doi: 10.3389/fpsyg.2018.00887
- Yoon, Ki Young. 2019.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 Burnout of Mother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y.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Yu, Jong Pil.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and Understanding*.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구효진, 오인지, 임화성. 2017. 유아특수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7(1): 205-231.
- 김예은, 김갑숙. 2020.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자기돌봄의 매개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6(2): 29-54.
- 김유진, 김철웅, 임효빈, 이상이, 강정희. 2019. 간호사의 업무 부담에 따른 정서적 소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9): 93-102.
- 김이수, 고미애. 2017. 5성급 호텔 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소진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1(3): 151-165.
- 김종두, 오가영. 2018.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정어린이집 원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문사회* 21. 9(3): 911-922.
- 김지연, 정규엽. 2017. 호텔리어의 직무환경 불만이 신체적 소진 및 정신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6(5): 101-116.
- 김태훈, 김민정. 2017. 초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 대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중재효과. *교육종합연구*. 15(2): 19-37.
- 박미경. 2017. 응급실 간호사의 강인성, 사회적지지 및 소진간의 관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0): 397-405.
- 박진희, 소혜진. 2019. 음악치료사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5(4): 247-269.
- 박희철, 김민정. 2018. 초등학교 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소진의 관계에 대한 학생문제행동 지각의 매개효과. *교육종합연구*. 16(2): 123-150.
- 신강현. 2003. 일반직 종사자를 위한 직무 소진 척도 (MBI-GS)에 대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3): 1-17.
- 오진경, 김상림. 2020.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1): 83-90.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레이카데미.
- 윤기영. 2019. 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축약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63-377.
- 장성오, 김용미. 201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소진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도르프교육연구*. 3(1): 91-111.
- 정현희. 2017.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 *임상미술심리연구*. 7(1): 1-17.
- 조상호, 강대욱, 김성철. 2018. 보육교사의 자기격려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4): 51-63.
- 최은아, 고희선. 201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의 부적응 행동특성의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503-530.
- 한은아, 김보영, 이상민, 신호정. 2011. 부모양육 태도와 부모소진 및 자녀 학업소진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7(1): 270-293.
- 홍성두, 이재열, 유인지. 2017. 특수학급 교사 심리적 소진 측정 도구의 타당화. *한국초등교육*. 28(4): 145-16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한국판 부모 소진 척도 타당화 연구

국문초록 부모 소진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부모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kam *et. al.*(2018)이 개발한 부모 소진 척도(Parental Burnout Assessment, PBA)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모 소진 척도는 23문항,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진: 부모 역할에 대한 탈진’, ‘자기 대조: 부모로서 자기 대조’, ‘포화: 싫증남’, ‘정서적 거리두기: 자녀와 정서적 거리두기.’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226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항 분포도 및 양호도, 신뢰도를 확인하고 4요인모형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에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 오던 직무 소진 측정도구(MBI), 부모 소진 측정도구(PBI)와 양육 스트레스 척도(PSI)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부모의 소진을 측정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타당화된 척도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부모 소진, 번아웃, 부모 소진 척도, 타당화

Profiles **Mun Seol Eom** : She is a Ph.D. candidate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r research areas of interest include parenting, parental burnout, and child rights(crecenciams@naver.com).

Yang Hee Lee :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at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She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on children’s rights, child maltreatment,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leeyh@skku.edu).